

# 벤투호 내일 수원서 파라과이와 모의고사

월드컵 우루과이전 염두  
포지션별 '플랜 B' 모색  
수비라인 변화 불가피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거둬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는 축구 대표팀이 남미 팀과의 대결을 이어간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FIFA 랭킹 29위)은 10일 오후 8시부터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파라과이(FIFA 랭킹 50위)와 친선경기에 나선다.

2일 브라질(FIFA 랭킹 1위), 6일 칠레(FIFA 랭킹 28위)와의 경기에 이은 6월 A매치 4연전 중 3번째 경기다.

14일 서울에서 만날 마지막 상대 이집트(FIFA 랭킹 32위)를 제외하면 벤투호는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첫 상대인 우루과이를 염두에 두고 평가전을 치르고 있다.

이번에 맞붙을 파라과이는 4연전 상대 중 FIFA 랭킹이 가장 낮고, 카타르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8위에 그쳐 본선에 오르지 못하는 등 객관적 전력에선 앞선 두 팀에는 밀리는 것으로 평가된다.

역대 전적에서도 한국이 파라과이에 2승 3무 1패로 앞선다. 최근 두 팀의 맞대결은 2014년 10월 천안에서 열린 평가전이었는데, 당시 김민우, 남태희의 연속골로 한국이 2-0으로 승리한 바 있다.

파라과이는 이날 A매치 기간엔 일본, 한국에서 각각 원정 친선경기에 나선다. 2일 삿포로돔에서 일본에 1-4로 패한 뒤 한국을 만난다.

이번 소집엔 자국을 비롯해 멕시코, 아르헨티나,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 다양한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모였는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뉴캐슬의 미드필더 미겔 알미론 정도가 유럽 '빅 리그' 소속의 유명 선수로 꼽힌다. 알미론은 일본과의 경기에 선발로 나선 바 있다.

칠레와 더불어 '우루과이 스타일'과 흡사한 것으로 평가받는 파라과이를 상대로 벤투호는 여러 포지션에 걸쳐 '플랜 B' 찾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격진의 경우 칠레를 상대로 선제 결승포를 터뜨렸던 황희찬(울버햄프턴)이 기초군사훈련 소집으로 빠지는 게 가장 큰 변화다.

벤투호는 앞선 2경기에서 최전방에 황의조(보르도), 손흥민(토트넘)을 번갈아 기용한 가운데 황희찬은 선발로 고정해왔는데, 그 자리가 빈 것이다.

황의조가 최전방에 돌아올지, '손흥민 원톱' 실험이 계속될지가 2선 경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칠레전에서 활동량과 패스 등으로 존재감을 각인한 정우영(프라이부르크), 특유의 스피드를 뽐낸 엄원상(울산), 브라질전 교체, 칠레전 선발로 나선 나상호(서울) 등 젊은 자원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



파라과이와 친선경기를 앞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손흥민이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종합운동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직 2경기에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한 송민규(전북) 등도 언제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선수다.

1-5 대패를 당한 브라질전은 물론 2-0으로 완승한 칠레전에서도 불안감을 노출한 수비진도 변화가 예상된다.

수비라인의 핵심인 '괴물 센터백' 김민재(페네르바체)의 부상 공백이 있지만, 사실상 '1.5군'인 칠레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가슴을 쓸어내리는 장면이 나왔던 건 강호들을 연이어 상대할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짙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벤투 감독은 브라질전엔 홍철(대구)과 권경원(감바오사카), 김영권(울산), 이용(전북)의 포백 수비진을 꾸리고, 칠레전엔 홍철과 권경원, 정승현(김천), 김문환(전북)을 세웠는데, 이번 경기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 광주FC 허율·헤이스 K리그2 19R 베스트 11

베스트 매치는 대전-전남

광주FC 헤이스와 허율이 나란히 19라운드 주간베스트11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하나원큐 K리그2 2022 19라운드 5경기를 평가한 결과, 멀티골을 득점한 헤이스와 소중한 동점골을 기록한 허율을 주간베스트11에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는 지난 5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충남아산FC와의 홈경기에서 짜릿한 3-2 역전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광주(13승2무2패·승점 41점)는 2위 대전(10승5무2패·승점 35점)과의 격차도 '6' 점으로 벌렸다. 동시에 K리그2 시도민구단 홈 최다연승 신기록과 K리그2 홈 최다연승(9연승)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는 데 성공했다.

경기수훈선수(MOM)와 함께 주간베스트11에 이름을 올린 헤이스는 광주의 간판 공격수다운 면모를 보여줬다. 헤이스는 후반 39분, 이득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침착하게 성공시켰으며 후반 47분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멀티골을 기록하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또 경기 내내 적극적인 압박과 키패스로 공격에 힘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다.

공격수 부문에 선정된 허율은 후반 교체 투입 후 큰 키를 활용한 연계플레이와 슈팅으로 상대 골문을 노렸으며 후반 28분, 수비를 등진 상태에서도 강력한 슈팅으로 팀에 소중한 동점골을 기록하는 등 팀 승리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한편 연맹은 주간베스트11에 허율(광주), 에르난데스(경남), 티아고(경남·이상



허율 헤이스

FW), 헤이스(광주), 이상현(부산), 임덕근(대전), 윌리안(경남·이상MF), 김재우(대전), 김영찬(경남), 황준호(부산·이상DF), 손정현(경남·GK), MVP는 윌리안(경남)을 선정했다.

베스트 매치는 대전과 전남의 경기, 베스트 팀은 경남이다. /조혜원 기자

## 광주장애인체육회 '스포츠버스' 운영

선광학교 외 복지관 등 3개소

광주시장애인체육회가 오는 13일까지 광주시선광학교 외 복지관 등 3개소에서 장애인스포츠버스를 운영한다.

8일 광주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체험형 장애인스포츠버스' 사업은 장애인 체육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도 인력이 부족하고 체육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스포츠버스가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장애인스포츠버스는 버스 내에 설치된 체력측정 장비를 통해 장애유형과 기능별

로 체력을 측정하고, 맞춤형 운동법을 지도해주며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해 스포츠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물론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활용해 방문하는 장소·대상별 특징에 따라 찾아가는 운동회, 어르신 스포츠 체험 등을 운영하고 지역별 장애인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도 연계해 진행할 예정이다.

장애인스포츠버스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전국 총 29개소에서 운영된다. /최진화 기자

## 컬링 국가대표 선발전 개막

오는 10~17일 진천선수촌 여자부 팀 김 등 7개 팀 출전

2023년 세계선수권대회 및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할 컬링 국가대표를 뽑는 KB금융한국컬링선수권대회가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열린다.

대한컬링연맹은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진천선수촌에서 2022 KB금융 한국컬링선수권대회가 열린다고 8일 밝혔다.

연맹은 "이번 대회를 통해 내년도 세계선수권대회 및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할 국가대표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모든 팀에 출전 자격을 주었던 지난 대회와 달리 올해는 상위권 팀에게만 출전권이 부여돼 치열한 명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자부에는 현 국가대표인 강릉시청 '팀 김'(스킵 김은정)과 경기도청 '5G'(스킵 김은지), 춘천시청(스킵 하승연), 전북도청(스킵 신가영), 봉명고(스킵 김민서), 송현고(스킵 강보배), 의성여고 등 7개 팀이 출전한다.



컬링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하는 팀 김. /대한컬링연맹 제공

남자부에는 현 국가대표 경북체육회를 비롯해 강원도청, 경일대학교, 경기도컬링경기연맹, 서울시청, 의정부고, 의성고, 서울체고 등 8개 팀이 참가한다.

대회는 참가팀 전체가 라운드로빈 방식으로 예선전을 치른 뒤 상위 4개 팀이 플레

이오프(PO)에 진출하는 '올림픽 시스템'으로 진행된다.

플레이오프에선 1위 팀과 4위 팀, 2위 팀과 3위 팀이 맞붙는다. 경기는 10엔드로 진행되며, 정규 엔드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연장 엔드가 치러진다. /연합뉴스

## 전남체육회 청소년스포츠안전교실 연다

스포츠안전재단 공모 선정

전남도체육회가 2022년도 청소년스포츠안전교실 공모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비 전액(3,0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전남도체육회는 스포츠안전재단이 공모한 2022년도 청소년스포츠안전교실 사업에서 요트 종목을 중심으로 한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청소년스포츠안전교실은 보성 비봉마리나요트클럽을 중심으로 총 4회, 160명을

상대로 내달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남체육회는 스포츠 안전문화 선도 및 체험을 통한 청소년 삶의 만족도와 학업 성취도를 향상하고 특히 요트를 통한 해양 안전교육을 습득해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기술을 축적하는 기대효과를 노리고 있다.

최기동 전남도체육회장 직무대행은 "학업에 바쁜 청소년들에게 휴식의 여유와 함께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세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

## 류현진 '어깨 수술' 정밀검진... "큰 이상 없어"

왼쪽 팔뚝 통증으로 부상자 명단(IL)에 오른 류현진(35·토론토 블루제이스)이 7년 전 자신의 어깨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에게 정밀 검진을 받는다.

8일(한국시간) 스포츠넷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는 "류현진이 오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닐 엘라트라체 박사를 만나 팔꿈치 검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켈란 조브 정형외과 소속의 닐 엘라트라체 박사는 2015년 류현진의 어깨 수술을 집도한 의사다.

앤젤스 단장은 류현진의 자기공명영상



류현진

(MRI) 검사결과와 관련해서는 심각한 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류현진의 팔꿈치에서 '만성적인 변화'를 발견했지만 그 외에 큰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현진은 지난 3일 MRI 검사에서 팔뚝 염좌와 팔꿈치 염증이 발견되면서 15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연합뉴스